

‘진정성 있나’

광주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보궐선거 겨냥 정략적 노골화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참배하고 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내일이면 (4·7 보궐선거가) 시작되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노골적인 호남 표심 공략 의도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5·18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광주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작년 8월에 다녀간 뒤

국민의힘이 임무를 마쳐가는 과정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광주 시민에) 사죄하려고 하면 5·18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것 아니냐’ 질문에 “그건 국회에서 이려고 저려고 5·18논의하는 건데 내가 특별하게 굳이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호남동행’ 지역법안 발목
민주당 ‘호남발 지인찾기’
역전 시도 차단 전략 시각

가 확정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5·18 묘지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기대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광주 방문이 선거를 앞두고 서울에 사는 호남 출신 유권자를 잡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그 의도를 거침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이후 호남 민심 잡기 나서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나 5·18 관련법 등에 판지를 걸거나 소극적이어서 이번 방문도 ‘쇼’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 바로 다음날인 25일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정치 공학적 광주 방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선거가 열리는 지역을 방문해 자당 후보 지지 호소를 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인데,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광주를 방문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인 ‘호남발 지인 찾기’ 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 밀리는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위해 대대적인 지인 찾기 운동을 통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지역적가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호남에 대한 다양한 구애 노력이 있었지만, 진정성은 별로 였다”면서 “이번 광주 방문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서울의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다급한 與, 보궐선거 ‘정권 수호론’ 읍소 전략

당정 지지율 동반↓…민심 이반에 ‘핵심층’ 절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하루 전인 24일 선거 전략으로 ‘정권 수호론’을 꺼내드는 양상이다.

재자, 중증 치매환자,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광기어린 막말 선동을 한다”고 소개했다.

◆오세훈 ‘文 파면’ 발언 집중 조명 ‘촛불정신 도전’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행동이 절실한 때”라며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을 선동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019년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에 참석한 것을 거론했다.

김 대행은 “오 후보가 중도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처럼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장면을 보니 극우 정치인이다. MB 아바타를 넘어서 극우정치의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독

◆민심 이반에 ‘핵심층’ 절실 ‘서울시장 결국 1% 싸움’

이처럼 민주당이 오 후보의 2년 전 보수 집회 발언까지 끄집어내 맹공을 퍼부은 것은 전(前) 정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발표된 YTN 의뢰 리얼미터 3월 3주차(15~19일 조사) 주간집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동반하락해 28.1%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5.5%로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따돌렸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울에선 38.9%까지 치솟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1%의 피말리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읍소’ 전략 통한 예도…“보선, 핵심층 모은 쪽 이겨”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놓고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떠올리는 시각도 있다.

당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극한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선거 직전 새누리당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위기를 부각시키며 읍소 전략에 나섰다.

이런 레임덕 위기론에 당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며 세월호 정국에서도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서 새누리당이 선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막판 ‘읍소’가 통한 셈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유사한 ‘읍소’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공유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면서 1분29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카드뉴스 형식의 이 영상은 “이번만은 파란색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압니다 당신의 실망. 압니다 당신의 허탈. 압니다 당신의 분노”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가 같은 말인가요”라며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투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읍소하는 영상인 셈이다. 뉴스

이재명 “지지율 하락, 국민 뜻 겸허히 수용…주어진 일 열심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와 함께 지지율이 급반등하자 이 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지지율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7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고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선거를 언급하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고생할 수 있어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박영선 “임종석 할 말 많겠지만 자제해줬으면”

임종석의 ‘박원순 옹호’에 “피해 여성 상처 아물지 않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연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임종석 거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고생할 수 있어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이) 청렴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그렇게 몸값 사람이었나.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 윤리라면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언급해 야권으로부터 2차 가해 비판을 받았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